

47. 정답 ④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연봉 100에서 자격증 취득 비용 40을 제외한 60이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때의 수입이 60보다 작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48. 정답 ②

수일이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30(=100-70)$ 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X 다. 따라서 수일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은 $X \geq 30$ 이다. 순애가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 순수입은 $60(=100-40)$ 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X 다. 따라서 순애가 자격증을 취득할 조건은 $X \leq 60$ 이다.

49. 정답 ④

㉠의 방식을 따르면 수일의 순수입은 50, 순애의 순수입은 60이고, ㉡의 방식을 따르면 수일과 순애의 순수입은 모두 75이다. 따라서 수일과 순애 모두 ㉡의 방식을 선호한다. 한편 (주)꼬끼오 식품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총 150의 비용이 들므로 두 방식 간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생산성과 관련이 없는 자격증 취득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의 방식이 우월하다.

50. 정답 ④

이 문제는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한다. A기업이 1만 원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하면 B기업은 자사 가치가 0원이거나 1만 원일 경우에만 인수에 동의하고, 2만 원일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A기업이 생각하는 인수 확률은 $2/3$ 이고 A기업이 기대하는 이득은 $\frac{1}{3} \times (0 \times 1.5 - 1) + \frac{1}{3} \times (1 \times 1.5 - 1) = -\frac{1}{6}$ 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A기업이 2만 원을 인수 가격으로 제시해도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기업은 인수 가격으로 0원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 인수로 기대할 수 있는 이득도 0원이다.

4. 국민 경제의 활동과 경제 변동

1. 정답 ⑤

경기변동은 시장경제의 본질적인 속성의 하나다. 예상되지 못한 정책 변화나 유가 변동 등 대내외적인 충격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반응함에 따라 경기변동이 발생하게 되며, 경기변동의 주기와 폭은 대내외적인 충격의 크기나 성질, 그리고 경제구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쌀과 같은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자동차 등 내구재보다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변화한다.

2. 정답 ②

국내총생산은 민간소비지출, 민간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재고변화), 정부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의 합과 같다.

3. 정답 ④

투자의 개념에 대한 문제다. 국민소득계정에서 투자는 크게 설비투자, 건설투자, 재고변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장 증설이나 주택 건설은 건설투자에 해당된다. 우리 경제의 전체 투자수요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투자에 사용된 재화가 해외에서 생산된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식당의 식기 수입도 설비투자로 간주된다. 반면, 주식매입은 '주식투자'로 불리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상관없는 금융자산 거래이므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국민소득계정의 투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답 ③

국내총생산(GDP)의 지출 항목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된다. 이 중 소비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다른 항목에 비해 변동성이 작다. 반면 투자는 가장 변동성이 큰 항목이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생산한 것보다 국내에서 적게 지출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비 침체와 같은 내수 부진과 더불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기간 동안 극도로 위축되었던 내수는 우리나라가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한편, 순수출은 국내총생산보다 클 수 없지만 수출 자체는 국내총생산보다 클 수 있다. 이는 수출입이 중간재까지 포함하여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가 그 한 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에 생산된 품목이 그 해에 소비 또는 판매가 되지 않았다 해도 그 품목에 대해 시장가치를 매겨 지출 국민소득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으므로 재고 항목도 해당연도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된다.

5. 정답 ②

경제성장 요인에 대한 문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양적 투입요소, 기술수준, 경제체제의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개방 확대 또는 수입관세율 인하는 해외로부터 경쟁 압력을 받아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며,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것도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 경제주체가 노력에 따른 과실을 얻는 데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경제행위가 가능해진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즉각적으로 경제성장을 높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6. 정답 ③

당장 느끼는 수온에 의존하여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샤워꼭지를 돌리는 것을 통화정책에 비유하자면 단기적 정보에 의존하여 급격히 통화정책을 바꾸는 것이 될 것이다.

7. 정답 ④

기업의 투자결정은 일차적으로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기대수익과 투자비용을 비교하여 이루어진다. '투자세액공제'가 내년에 실시된다면, 내년의 투자비용이 올해의 투자비용보다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올해 시행하려던 동일한 투자 계획을 내년으로 연기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8. 정답 ④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하여 기업 투자를 증가시키고, 예금보다는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여 주식시장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기업의 담보 능력을 높임으로써 대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고 수입물가도 상승한다.

9. 정답 ③

쿠폰은 조합원 간에 탁아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경제 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해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쿠폰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탁아조합의 침체는 통화량 부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총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만약 전체 쿠폰 수를 늘려 각 가정이 장시간 외출이나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기에 충분한 수의 쿠폰을 보유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기게 될 것이다.

10. 정답 ①

A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에 너그러운 반면 높은 실업률은 매우 싫어하므로 A국 여당은 경기 확장적인 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외채의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정답 ②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을 비롯한 일부 연도에는 우리나라의 상대소득이 하락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1인당 GDP 증가율이 미국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 1인당 GDP의 '상대적인 수준'은 1970년에 비해 2005년에 약 5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그림으로부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알 수 없다.

12. 정답 ④

자료에 제시된 실업은 직업탐색 과정에서 정보부족 등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에 해당하며 ④의 경우와 유사하다. ①은 계절적 실업, ③은 경기적 실업, ⑤는 구조적 실업을 의미한다. 한편 ②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정답 ④

경제활동참가율은 고용률보다 높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차이는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인 실업률과는 다르다. 40대 이후 고용률이 감소(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역시 감소하는 것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급격히 감소(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text{실업률} = 1 - \text{고용률} / \text{경제활동참가율}$ 의 관계를 가지며, 고용률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더욱 빨리 감소하면 실업률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⑤

취업자 수의 증감은 인구적 요인(A)과 경기적 요인(B 및 C)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바) 기간에 전년도에 비해 실업률 하락의 기여도가 낮아졌으나 이것이 실업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옳지 않다.

15. 정답 ③

실업자이던 철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바뀌었다. 실업률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분자인 실업자보다 분모인 경제활동인구가 큰 상황에서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같은 숫자만큼 줄어든 것이므로 실업률은 하락한다. 고용률의 경우 취업자와 생산가능인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므로 변화하지 않는다.

16. 정답 ⑤

실업률 상승과 물가상승률 하락은 총수요가 감소(총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한국은행의 국채 매각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법인세율 인상이나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는 모두 총수요를 줄이는 요인들이다. 한편 유가 상승은 총공급의 감소(총공급곡선의 왼쪽 이동)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실업률 상승과 물가상승률 상승을 유발한다.

17. 정답 ⑤

경제활동인구는 50명이다. 여기에는 취업자 40명과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발령 대기 중에 있는 실업자 10명이 포함된다. 한편,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20명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30명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를 이용하여 각 고용 지표를 계산하면 실업률은 20%, 고용률은 40%, 취업률은 50%, 경제활동참가율은 50%이다.

18. 정답 ②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출산율은 하락한다. 그림은 OECD 국가들에서 1980년에 음(-)의 관계를 보이는 여성고용률과 합계출산율의 관계가 2000년에는 양(+)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즉, OECD 국가들에서 보육서비스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남성이 일을 하고 여성이 양육을 하는 '전통적인 관계'가 과거보다 덜 중요해졌음을 반영한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우에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은 것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이며, 가구소득이 높아 출산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여성들의 취업기회가 적어져 구직시장에서 빠져나와 출산과 보육에 전념하게 되는 것은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1980년대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논거다.

19. 정답 ②

주어진 그림은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화분과 경제성장률 자료를 이용하여 두 변수 사이에 음(-)의 관계가 있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ㄱ은 올바른 설명이다. ㄴ에서 올해 실업률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즉 실업률 변화분이 0이라면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x축 절편값을 가져야 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그림의 ㉠점에서는 실업률 변화분은 양(+)의 값을 가지므로 실업률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음(-)이므로 국내총생산 규모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ㄴ은 올바른 설명이다. ㄷ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20. 정답 ②

1990년대 이후 제조업에서 실질 GDP는 증가했으나 고용 탄성치가 음(-)으로 나타난 것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등 고용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말해준다. 그 원인으로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생산 비용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제조업에서 고용 창출력이 높은 노동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낮아진 점을 들 수 있다.

21. 정답 ③

소비가 증대된다는 주장은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지출가능소득, 즉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진작되고 이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나 생산이 증대하여 다시 소득이 늘어난다는 전통적인 재정정책 효과를 상정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소비자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자신들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에도 의존한다고 보아, 현재의 삭감된 세금이 미래에 자신 및 후손들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되므로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22. 정답 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국내 재화가 외국 재화에 비해 비싸지므로,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들어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23. 정답 ③

현금을 지급하면 개인의 선호에 따라 소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게 쌀을 지급하는 이유는 정부가 생필품인 쌀의 소비를 다른 재화의 소비보다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다(이런 재화를 '가치재(merit good)'라 한다. 가치재란 의료, 교육, 주택 등 일정 수준이상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리킨다). ①과 ④는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②는 쌀 지급이 부수적으로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이며, ⑤는 현금 지급 시의 잠재적 위험을 예시하는 것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도 선호가 동일하지 않는 한 상이한 묶음의 소비를 좋아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③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24. 정답 ③

대규모 공업이 발달하지 못해 자본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것은 이자율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다.

25. 정답 ②

수입물가의 상승, 특히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고정금리 대출은 계약 당시 대출이자율이 정해지는 반면,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된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시장이자율의 상승은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에 전가되므로 변동금리로 대출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26. 정답 ②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며, 물가상승률은 높아진다. 한편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모두 매입함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의 양은 변화가 없으므로 실질 국채금리는 변화하지 않는다.

27. 정답 ②

2009년까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등락이 있었으나 모두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한편, 정책을 시행할 경우의 효과는 처음에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크게 나타나지만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든다. 따라서 정책의 단기적 효과가 장기적 효과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2014년 물가상승률은 정책 시행 여부에 관계없이 같아지지만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차이로 인해 물가 수준은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다.

28. 정답 ①

자료에 나타난 정책은 실업률을 낮추고 물가상승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공개시장에서 국채 매입을 통한 통화량 증가 또는 금리 인하, 소득세 인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산업용 전력 요금 인하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총수요보다는 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9. 정답 ①

국내총생산(GDP)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및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으로 구성되며 재고증감은 투자에 포함된다. 2007년의 GDP는 자동차 생산으로 1,000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비 600억 원과 투자(재고증감) 400억 원으로 지출되었다. 2008년에는 생산의 변화가 없어 GDP는 바뀌지 않으며, 소비가 400억 원 증가한 것은 투자(재고증감) 400억 원 감소로 상쇄되었다.

30. 정답 ④

외국과의 교역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는 그 해에 생산한 모든 재화를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투자가 GDP와 같아질 수 있을 뿐이며, GDP보다 클 수는 없다. ①, ②, 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각각 싱가포르, 쿠웨이트, 일본에서 발생한 적이 있다.

31. 정답 ②

실질 GDP가 변하지 않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명목 GDP는 늘어난다. GNI와 GNP는 명목 변수로는 동일하지만, 실질 변수로는 교역 조건의 변화에 따른 무역에서 손익이 발생할 수 있어 차이가 생긴다.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GNI에 포함된다. 따라서 박지성의 소득은 명목 GNI와 실질 GNI를 늘린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생산은 우리나라 GDP에서 제외된다.

32. 정답 ②

서영의 생산에 관련된 경제 활동은 변함이 없다. 즉, 열쇠고리 10개를 생산했다. 또한 제시문에서 열쇠고리의 가격은 변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 GDP와 명목 GDP는 모두 변함이 없다. 또한 서영의 생산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명목 GNP도 명목 GDP와 같이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영은 같은 양의 열쇠고리를 수출했지만 수입 가격의 상승과 같은 교역 조건의 변화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렌지를 절반밖에 수입하지 못해 무역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따라서 실질 GNI는 감소했다.

33. 정답 ②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동요하고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은행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p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준비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였다. 또한 정부도 외화차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외화 공급의 경색에 대응하였다. 출구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도입한 이러한 정책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34. 정답 ④

기업은 가격으로부터 토지,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대, 임금, 이자 등을 지불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소유권이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전되는 행위이므로 국민소득의 순환에 포함되지 않는다.

35. 정답 ③

A의 제안은 신규 자동차의 증가 억제를 통해, 그리고 B의 제안은 기존 자동차의 감소 및 신규 자동차의 증가 억제를 통해 연료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주행거리에 비례한 세금의 징수나 자동차 연료세의 인상은 자동차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들기 때문에 소비하는 연료의 양에 따른 비용부과방식이다. E의 제안은 자동차 운행의 개인적 필요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무관하게 설정된 차량 번호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므로, 자동차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의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홀짝제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36. 정답 ⑤

2006년에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보다 낮았으므로 명목성장률이 실질성장률보다 낮았다. 한편, 이자율과 임금상승률은 대체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과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1990년대 초반의 명목이자율과 명목임금 상승률이 2006년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비자물가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비자물가가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소비재 비중이 높은 반면 수출재화의 비중이 낮음을 감안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수입소비재 가격의 상승률이 수출자본재 가격의 상승률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37. 정답 ④

개인 저축률의 하락은 GDP 대비 개인소비 비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2003~04년 기간에 관찰된 개인 저축률의 일시적 상승은 GDP 대비 소비의 감소, 다시 말해 개인소비의 증가율이 GDP의 증가율보다 낮았음을 의미한다. 기업 저축의 원천은 기업의 순이익이며, 정부 저축의 감소는 재정수지 적자 확대 또는 흑자 축소를 의미한다.

38. 정답 ②

1986년과 1988년은 다른 기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시기다. 전 기간에 걸쳐 경제의 생산능력 증가율에 변화가 없었다고 가정하였으므로, 1986년과 1988년에는 생산 능력에 비해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1992년의 경우 1988년과 1990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시기이므로 물가상승률도 낮았을 것이다.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교역 대상국들의 경제성장률에 큰 변화가 없어 수출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면 내수가 크게 부진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수입이 부진하였을 것이므로 무역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2000년의 경제성장률이 양(+)의 값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총수요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정답 ③

A와 B의 차이는 금년 말에는 A가 10억 원을 더 주고, 내년 말에는 B가 11억 원을 더 준다는 것이다. 두 투자 계획의 차이가 없으려면 금년 말의 10억 원과 내년 말의 11억 원이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이자율은 10%이어야 한다.

40. 정답 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이는 곧 화폐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화폐 자산을 보유한 사람(예: 정기예금 가입자, 고정급 회사원 등)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예: 부동산 소유자 등)보다 유리하게 된다. 또한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 시에 발생하므로 기업 이익이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조세수입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은 명목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고정금리 대출자가 변동금리 대출자에 비해 불리해진다.

41. 정답 ④

선진국에서의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디플레이션은 실물자산 보다는 국채와 같은 자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 반면, 신흥국에서의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가치를 낮춰 임금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 보다는 실물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신흥국 통화의 가치가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들 국가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제시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흥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42. 정답 ④

60대 초반 여성의 실업률이 동일하다면 그래프에서 나타난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취업률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들 중 취업 여성의 비중은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높을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과 캐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대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실업률의 상승을 판단할 수는 없다. 캐나다와 스웨덴의 경우 2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가 집중된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보다는 보육시설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여성의 수를 늘릴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령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한편 기혼 여성의 단시간 근로 기회가 많은 것은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43. 정답 ④

외환위기 이후 인구증가율이 노동자 증가율보다 낮으므로 인구 대비 노동자 비중은 증가하였다. GDP 증가율은 1인당 GDP 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을 더한 것이므로 인구증가율 하락은 GDP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 증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노동자 1인당 자본스톡 증가율 하락이며, 이는 투자율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44. 정답 ④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

- 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유통비용을 낮추므로 (가)에서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소비, 투자의 위축은 총수요를 줄이므로 (가)에서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③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가계의 소비 등 총수요를 위축시키므로 (가)에서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의 요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모두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부를 이전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이 채무자로 부를 이전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임금 근로자가 얻은 소득의 구매력을 높이므로 실질임금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5. 정답 ④

경제개념을 현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줄이므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부를 이전시키지만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채무자의 변제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부를 이전시킨다. A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소득 감소(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증가)가 채무자의 소득 증가(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감소)보다 더 크다. 따라서 A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소비를 감소(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위축(확대)시킨다. 반면, B국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소비성향이 작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의 소득 감소(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증가)가 채무자의 소득 증가(감소)에 따른 소비 증가(감소)보다 더 작다. 따라서 B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소비를 증가(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총수요를 확대(위축)시킨다.

- ① (나)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라지면 부의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나)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라지면 부의 재분배가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 예상된 디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수요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A국과 B국의 총수요를 모두 확대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④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킨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A국의 총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총수요는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46. 정답 ④

1994~2000년 기간 동안 ㉠산업과 ㉡산업의 상대임금 하락 폭은 비슷하지만 1994년에 ㉠산업의 상대임금이 ㉡산업보다 훨씬 작았으므로, 상대임금의 감소율은 ㉡산업보다 ㉠산업에서 크다. 한편, 모든 점의 X축 좌표와 Y축 좌표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은 모든 산업에서 1994년과 2000년에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높았음을 나타내며, ㉢산업처럼 2000년의 비생산직의 상대임금이 1994년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비생산직 임금이 생산직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47. 정답 ①

중앙은행은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 목표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2001~2003년 기간 중 미국의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을 우려했다면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였을 것이다.

48. 정답 ⑤

A국 중앙은행이 새로 도입한 준칙에 따르면 정책 금리는 경기 수준과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정책 금리는 경제가 평균 경기 수준 이상일 때는 2%보다 높지만, 평균 경기 수준 이하일 때는 2%보다 낮다. 한편, 정책 금리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소비나 투자 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새로운 준칙은 경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상승세를 완화하고 경기가 내려가고 있을 때는 하락세를 완화한다. 이로부터 새로운 준칙 도입에 따라 경기의 진폭이 축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49. 정답 ①

기술진보는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 세금인하는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즉, 기술진보는 실질GDP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인 반면 세금인하는 실질GDP를 증가시키고 물가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0. 정답 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명목임금 상승률이 0보다 높았으므로, 명목임금은 증가하였다. 한편, 80년대 초반 명목임금 상승률이 하락하였으므로 물가상승률이 증가추세였다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하락하였을 것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졌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되었을 것이다.

51. 정답 ①

(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다) 종합주가지수

52. 정답 ③

총수요가 증가(감소)하면 실업률은 하락(상승)하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상승(하락)하게 된다. 한편 총공급이 증가(감소)하면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함께 하락(상승)한다. 정부지출 및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총수요 증가를 나타내고, 유가 상승과 농산물 생산의 감소는 총공급의 감소를 의미한다. 해외자본 유입은 통화량 증가를 초래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신용경색이 발생하면 총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53. 정답 ③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을 동시에 낮출 수 없으므로 정부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상의 한 점을 선택하여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지를 묻는 문제다. 자료에 주어진 정책 지표에서 a는 정부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상대적인 우려를 나타내며, a가 클수록 정부가 실업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a=0.5일때, 선택지에 주어진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조합 중 정부의 정책지표를 최소화하는 것은 (4%, 4%)이다.

54. 정답 ④

새로 출범한 정부가 실업률은 낮추고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변경하였으므로 과거 정부에 비해 실업 문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3번 문항의 해설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가 클수록 정부가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실업 문제에 대해 보다 큰 우려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새로운 정부에서 a는 0.5보다 클 것이다.

55. 정답 ③

저출산·고령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14세 이하 인구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며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즉, 노인 1명당 부양자 수는 계속 감소할 것이며, 15~24세 인구 비중은 14세 이하 인구 비중의 감소로 역시 감소할 것이다. 또한 양(+)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장년층(40~50대)의 비중은 감소하고, 음(-)의 저축을 하는 연령대인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중은 늘 것이다.

56. 정답 ③

국채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 반면 지방채 보유에 대한 세금은 면제되었으므로, 지방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대체재인 국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다면 국채의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채에 대한 가격은 상승한다. 이자율은 가격과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국채 이자율은 상승하고 지방채 이자율은 하락하게 된다.

57. 정답 ①

명목이자율은 2004년 5%에서 2005년 6%로 상승하였지만,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이자율은 2004년 3%에서 2005년 2%로 하락하였다. 투자의 기회비용이 낮아졌으므로 기업들의 투자는 증가하였을 것이다.

58. 정답 ②

가계가 예금을 줄이는 대신 현금보유를 늘리게 되면 은행의 신용창조가 감소하여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재할인을 인하,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공채 매입 등은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관련이 있다. 국제시장에서의 자금 차입도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된다.

59. 정답③

GDP 디플레이터는 $(\text{명목GDP}/\text{실질GDP}) \times 100$ 이다. 이 식을 통해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은 명목GDP 증가율에서 실질GDP 증가율을 차감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text{GDP 디플레이터 증가율} = \text{명목GDP 증가율} - \text{실질GDP 증가율}$). 2006년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음(-)의 값을 보였다는 것은 실질GDP 증가율이 명목GDP 증가율보다 컸음을 뜻한다. 따라서 2005년에는 실질GDP가 명목GDP와 같은 값이었으나 2006년에는 실질GDP가 명목GDP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이다. 또한 2006년에는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2005년 1,024원에서 2006년 955원으로 6.7% 하락)하여 두 물가지수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2006년에는 내수상품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60. 정답②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다.

- ① (가)에서 명목이자율은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명목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명목이자율과 예상인플레이션율은 모두 호황일 때 높아지고 침체일 때 낮아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총수요 증가로 경기가 좋아지면 실질이자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는 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예상인플레이션율의 상승은 실질이자율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총수요의 증가가 예상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③ (가)에서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상승하면 실질이자율을 높여 기업 투자의 기회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 ④ 정부의 실업급여는 침체일 때 늘고 호황일 때 줄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 ⑤ 소득의 변화에 따른 세금 규모는 침체일 때 줄고 호황일 때 늘어 (다)와 같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드는 자동안정화장치의 기능을 한다.

61. 정답①

경제개념을 현실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A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 (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로 예상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반면 B국에서는 명목이자율이 예상인플레이션율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실질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다.

- ① 경기 침체에 따른 예상인플레이션율 하락으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침체가 더 커진다.
- ② 이 진술은 ①의 이유로 옳지 않다.
- ③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B국의 실질이자율은 고정되어 있어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 ⑤ A국의 경기 침체는 더욱 크게 하지만 B국의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옳지 않다.

62. 정답③

추신성이 국채에 투자하면 1년 후 원리금은 확실하게 110만 원이 된다. 반면, (주)티라 채권을 구입하면 1년 후 원리금은 (주)티라의 부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때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보험료(β)를 내고 보험계약을 매입함으로써 (주)티라 채권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추신성이 (주)아라보험에 낼 의사가 있는 보험료는 (주)티라 채권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원리금이 국채에 투자해서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금과 크거나 같은 수준, 즉 $121 - (1+0.10) \times \beta \geq 100 \times (1+0.10)$ 에서 결정된다. 이를 풀면 $\beta \leq 10$ 만 원이며 따라서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63. 정답③

추신성이 지불 의사가 있는 최대 보험료는 10만 원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주)아라보험의 최대 수익은 10만 원이다. 만약 1년 후 정상적인 경우라면 (주)티라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므로 (주)아라보험은 추신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티라가 부도 나면 (주)아라보험은 원리금에서 상환액만큼을 제외한 110만 원을 추신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해

야 한다. 1년 후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을 p 라고 하면 (주)아라보험의 1년 후의 기대이윤은 $10 \times (1+0.10) - [p \times 110 + (1-p) \times 0]$ 이 된다. 이때 (주)아라보험이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기대이윤이 0 이상이어야만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p 는 10% 이하이므로 (주)티라가 부도날 확률이 10%를 초과하면 (주)아라보험은 손해를 보게 되므로 추신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다.

64. 정답 ②

대출 채권 1억 원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산계정에서 1억 원이 대손으로 처리되어 감소하며, 이러한 자산 가치의 하락에 대응하여 자본계정에서 1억 원이 감소함으로써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아야 한다는 대차대조표상의 항등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65. 정답 ①

(다)에서 도입된 규제는 (자본금/대출 채권) $\times 100 =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으로 하여금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 은행이 이러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출 채권을 줄이든지 자본금을 늘리면 된다.

66. 정답 ①

중앙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하면 시장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하락한다. 또한, 화폐보유비용의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통화증가율도 하락한다. 한편, 원화표시 자산의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외환시장에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67. 정답 ③

채권가격은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콜금리의 인상은 채권가격 또는 채권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킨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대체로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즉 채권의 가격이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의 수요자는 구입을 미루고 기업들은 채권발행을 서두를 것이다.

68. 정답 ①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면 회사채의 수요가 늘어 회사채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회사채 수익률 감소, 신용 스프레드 감소). (나) 시기에 국채 수익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국채 수요가 증가하여 국채 가격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과 신용 스프레드의 합이다. (다) 시기에 회사채 수익률은 상승하고 있으므로 투자는 줄어든 것이다. (다) 시기의 회사채 수익률은 (가) 시기보다 높으므로, 동일한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든다.

69. 정답 ③

채권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며, 채권의 가격은 채권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결정되는 가격은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채권을 보유하든지 매각하든지 차이가 없다.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하락한다. 이때 채권을 매각하는 사람이나 보유하는 사람이나 같은 크기의 손실을 보게 된다.

70. 정답 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금리가 하락하고 총수요가 늘어나면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또한 통화량 증가는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미국 가계의 구매력을 낮춘다. 한편, 재정 적자로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면 금리가 상승하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71. 정답 ①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에서는 외국 자본이 이탈하여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해외차입 금리가 높아진다. 한편, 미국의 국제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상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의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5.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의 전망

1. 정답 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대체 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의 수요가 늘면서 이의 원료인 옥수수의 수요가 늘어 옥수수 가격은 상승한다. 옥수수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여 농부들은 다른 작물의 경작지를 옥수수 경작지로 바꾼다. 결국 밀을 포함한 다른 농작물은 공급이 줄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가가 상승할 때 국제 농산물 가격도 상승하였다. 밀 가격의 상승은 이를 주원료로 하는 라면의 생산비용을 높여 라면 가격이 상승한다.

2. 정답 ⑤

대국의 재정 지출 증가는 자국의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양국은 생산 요소의 일부를 상대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대국의 국내총생산 증가는 소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국에서의 변동은 소국의 총수요와 총공급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소국의 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는 소국의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 대국의 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 가격의 상승은 소국의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대국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국 국내총생산의 변동은 두 요인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국의 재정 지출 증가에 따른 소국 국내총생산의 증감 여부는 확실치 않다. 대국의 재정 지출 증가가 소국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으므로, 소국의 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것인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한편, 대국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소국의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는 모두 소국의 물가 수준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므로 소국의 물가는 상승한다.

3. 정답 ④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미국의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한국의 농산물 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한국의 소비자와 미국의 생산자는 이를 찬성할 것이고, 한국의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는 이를 반대할 것이다.

4. 정답 ④

철수가 수입된 구두를 샀으므로 한국의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순수출(수출-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구두이므로 이탈리아의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GDP는 소비증가와 수입증가가 서로 상쇄되어 변화가 없다.

5. 정답 ②

A국과 B국은 관세 철폐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므로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소비자들의 편익은 증가한다. 그러나 수입품과 경쟁하던 A국과 B국의 공급자들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편익이 감소할 수 있다. 한편 A국과 B국이 C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재화의 일부는 A국과 B국 간의 교역으로 대체될 수 있다.